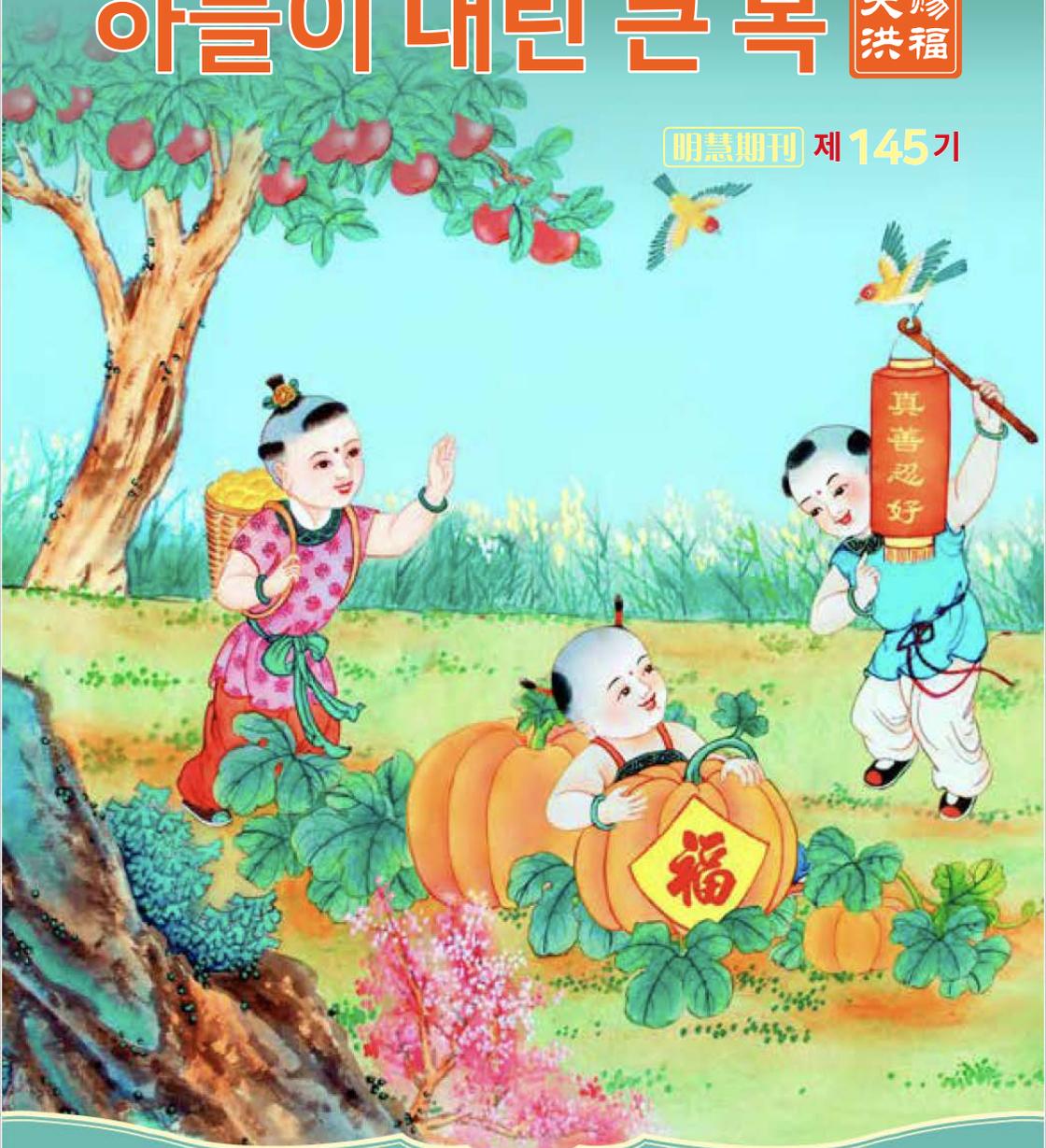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
洪福

明慧期刊 제 145기





석월(夕月)에서 중추절까지

글/ 약수(若水)



현대인에게 중추절은 주로 가족이 함께 모여 달을 감상하고 월병을 먹는 날이지만, 고대에는 석월의 예식이 주요 행사였다.

역사서에 따르면, 주나라 때부터 고대 제왕들은 춘분에는 태양, 하지에는 대지, 추분에는 달, 동지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중국 문화는 천인합일을 강조하며, 인간의 삶이 천시의 규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한다. 천자는 계절이 바뀔 때 조정의 대제를 열어, 하늘과 신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를 널리 전파하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추분, 석월은 서교에서” 이는 천자가 추분에 달을 제사하는 큰 예식을 열어, 백관을 이끌고 서교에서 달의 신께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상고 시대의 달 제사 예식은 청나라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베이징의 월단(月坛)은 명청 시대 천자가 달을 제사하던 장소이다.

추분은 가을의 중간이지만, 반드시 달이 가장 둥근 보름날은 아니다. 당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달을 감상하기에 적합한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로 정했다. 중추절에 달을 제사하는 풍습은 추분의 석월 예식에서 유래하며, 신전 문화의 내포를 전승했다.

송대에 이르러 중추절은 매우 성대한 명절이 되었고, 높은 곳에 올라 달을 감상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명나라 이후로는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풍습이 성행했으며, 사람들은 크고 둥근 월병으로 달을 제사 지내는데, 달과 월병이 둥근 것을 사람의 화목으로 상징했다. 그래서 중추절을 화목절이라고

도 불린다.

고금의 시가 중에서, 소동파의 ‘수조가두(水调歌头)’는 중추절에 달을 감상하며 인생의 감회를 표현한 명작으로 여겨졌다.

明月几时有, 把酒问青天。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잔을 들고 푸른 하늘에 물어보네

不知天上宫阙, 今夕是何年。

하늘 궁전에서는 알 수 없네,
오늘 밤이 어느 해인지.

我欲乘风归去, 又恐琼楼玉宇, 高处不胜寒。

바람 타고 돌아가고 싶어도,
옥으로 만든 궁전이 두렵다네,
높은 곳 추위를 견디지 못할까 봐.

起舞弄清影, 何似在人间。

일어나 춤추며 맑은 그림자와 노나니,
어찌 인간 세상에 있는 것 같으랴.

转朱阁, 低绮户, 照无眠。

붉은 누각 돌아, 비단 창문에 이르러,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비추네.

不应有恨, 何事长向别时圆。

나와 원한도 없을 터인데,
어이하어 이별할 때야 둥근 것인가.

人有悲欢离合, 月有阴晴圆缺, 此事古难全。

사람은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이 있고,
달은 어둡고 밝고, 차고 이지러짐이 있는데,
이런 일은 예로부터 온전하기 어렵다네.

但愿人长久, 千里共婵娟。

다만 오래오래 살아서,
천 리 밖에서라도 함께 달을 볼 수 있기를.

목차

CONTENTS

권두일문 1 석월(夕月)에서 중추절까지

독후감 2 “창세주가 난세에 사람을 구하다”

길성고조 (吉星高照) 4 진심으로 진언을 외우자 백폐가 사라져
5 수십 년간의 말더듬이 치료돼

6 백신 접종 후 뇌경색, 대법 수련으로 회복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8 천 길 낭떠러지에서 파룬따파를 만나 새 생명을 얻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 해외 명문 학교에 입학

세상을 이롭게 11 유전성 간염을 앓은 5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

평안을 얻는 길 13 선량함으로 엮은 아름다운 삶

16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생체 장기적출 생존자 경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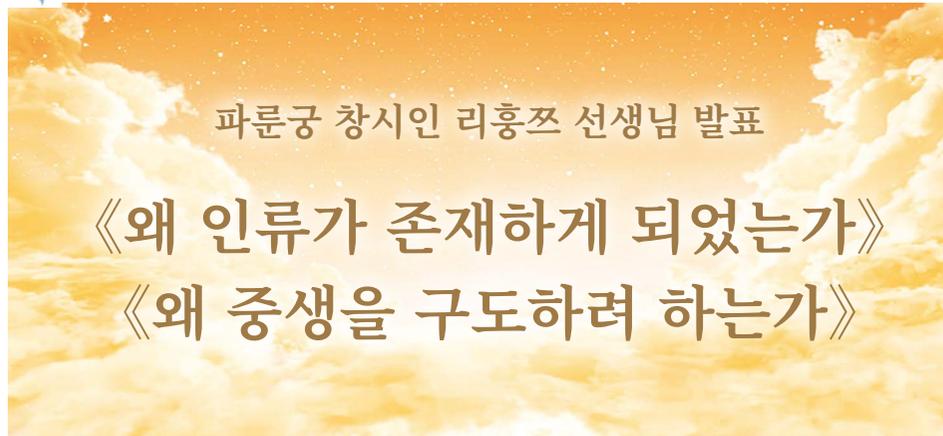
20 실종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 자녀를 잘 지켜야 해

23 전염병에서 불운을 피하는 방법

아는 것이 복 24 80세에 직장암, 90세에 나는 듯이 걷다

27 교통사고 재난에서 무사한 비결

항간여론 29 백 세 노인의 탈당기



▲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이 두 편의 글은 구구절절 천기로서 모든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았다면 누구나 복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창세주가 난세에 사람을 구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86세의 화교 위신바이(余心白) 씨는,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가 발표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글을 읽고, 창세주가 난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세상은 창세주와 신이 창조한 것이며, 그들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의 각오를 높여 신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더 나은 평화로운 세계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위(余) 씨는 이 글을 반복해서 읽기 위해 신문에서 잘라내어 보관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창세주를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며, 만왕지왕(万王之王)입니다. 창세주가 모든 인류와 이 사회를 창조했습니다.”

리 대사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글에서 우주의 변화 규칙, 삼계와 인류의 기원, 윤회의 목적 등 많은 중대한 천기를 밝혔으며 모든 사람이 이 중요한 글을 읽을 기회를 얻길 희망했다.

글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했다. “설을 쇠면서 원래는 마땅히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새해 덕담을 몇마디 해야 하는데, 내가 본 위협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류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못 신(神)·불(佛)이 나에게 신이 하고자 하는 말 몇마디를 세계중생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구구절절 천기(天機)인 바,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구도 받을 기회를 주려 한다.”

인과법칙에 관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주는 공평한 것으로, 생명은 잘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갚아야 한다. 이번 생(生)에 갚지 못하면 다음 생에 갚아야 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 생활의 빈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선함을 유지하고, 하늘을 공경하며, 신을 공경하고, 남을 기꺼이 도와야 한다. 그러면 복덕이 쌓이고 내세에 복을 받는다. 중국의 옛 노인들은 늘 이번 생에 좀 고생스럽다 하여 하늘과 땅을 원망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복덕을 쌓지 못하면, 당신이 신에게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다.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으며, 신 역시 따라야 한다. 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신도 벌을 받는다.”

위신바이 씨는 이를 매우 인정하며, 인과윤회(因果轮回), 선악에는 보응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하늘과 신을 경외하고 조상을 존경하는 것은 훌륭한 전통이며, 사람으로서 기본인 바 우리는 선량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파룬궁이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을 따르며,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때 중공으로부터 우파로 몰린 위신바이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농장으로 보내져 5년간 노동개조를 받았으며, 이후 홍콩으로 탈출해 결국 미국으로 이주했다.

위 씨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비난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고통이 내가 겪은 고통과 똑같기에 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며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 반(反)박해 집회에서 “공산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서 진실한 말을 할 것이고 제 인생과 공익을 위한 이것은 제 사회적 책임이기에 저는 나서서 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진언을 외우자 백폐가 사라져



[헤이룽장 투고] 2022년, 무서운 전염병이 닥쳤고 우리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감염되었다. 내 올케도 감염되어 열, 기침, 몸살,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다.

의사는 검진 후 가족에게 말했다. “폐가 이미 감염되었으며, 백폐(白肺)입니다. 병원에 침상도 없고, 80세가 넘으셨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특별한 약도 없으니 집에 가서 약을 사 드십시오.” 올케의 딸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다시 지역 보건소로 데려갔지만, 그곳도 사람들로 가득 차 노인을 받아주지 않았다. 올케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올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나는 올케를 찾아가서 “잇으셨나요? 올케가 81세 때 허리 뼈가 부러져 일어서지 못했잖아요. 제가 ‘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真善忍好(쩐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외우고,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결과 두 달 남짓 만에 다 나왔어요! 왜 아홉

글자 진언을 암송하지 않나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올케는 계속해서 암송했다.

다음 날, 올케는 경추병으로 5~6년간 제대로 돌릴 수 없었던 고개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파룬따파하오’를 암송하면 정말 효력이 있네, 경추증이 나왔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돼?” 나는 “네, 많이 알릴수록 좋아요, 축복도 받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올케는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우고 있다. 이제 그녀는 백폐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온종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마음에 정기가 있으면 사(邪)가 교란하지 못한다

‘황제내경’에 “마음에 정기가 있으면 사(邪)가 교란하지 못한다(正气存内, 邪不可干)”라는 말이 있다. 파룬따파는 불가(佛家)의 고덕(高德) 대법이고 진선인(真·善·忍)은 우주의 특성이다. 사람들이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성심성의껏 외울 때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공명하여 자신의 정기를 강화하고 외부의 사악[예: 바이러스, 역귀(疫鬼) 등]의 침입을 막아 낸다. 

수십 년간의 말더듬이 치료돼



서 내 몸을 정화해주는 것을 알았다. 지역 수련생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다채로운 빛이 나를 둘러싸고 도는 것을 보았고,

그날로 열이 내렸다. 그 후로 나는 병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 후로는 약 한 알도 먹지 않았다.

나를 수십 년간 심하게 자괴감에 빠뜨렸던 말더듬이도 신기하게 나았다! 이제 일반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다. 가족과 이웃은 “수십 년간의 말더듬이가 어떻게 나았나요?”라고 놀라며 물었다. 나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었기에 파룬궁을 수련했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그 해는 중공이 파룬따파를 가장 광적으로 박해하던 때였으며, ‘텐안먼 분신자살’ 가짜 사건을 만들어 파룬궁을 무고했다. 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건강 상태도 점점 좋아졌고, 이제 70세인 나는 50세 정도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대법이 하사한 것이다! 

[중국 동북 투고] 1950년대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지주 집의 ‘개자식’, ‘흑오류’(지주·부농·반혁명분자·악질분자·우파 등 다섯 부류의 반동분자를 가리킴)가 되었다. 당시에는 ‘3반’, ‘5반’, ‘숙청’, ‘문화대혁명’ 등의 운동이 끊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자주 비판 투쟁을 받으며 구타당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말을 더듬고, 말할 때 고개를 흔들고 눈을 깜빡였다. 게다가 출신이 좋지 않아 결혼할 나이가 되어도 시집을 가지 못했다. 가족들은 나를 약간 ‘후(虎, 방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한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 남편도 나를 무시하며 자주 때리고 욕했고 나는 신장 질환, 혈뇨, 기관지염, 잦은 고열 등 많은 병에 걸렸다.

2001년에 나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다행히 구원받았다고 기뻐했다! 수련한지 두 달 후, 이틀 밤낮으로 40도 이상의 고열이 났지만, 이전의 열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것이 사부님께

백신 접종 후 뇌경색 대법 수련으로 회복



[중국 투고] 2021년에 나는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소속 기관에서 기술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었고, 출국 전 중국에서 우한 폐렴 백신을 접종받았다. 같은 해 6월 중순, 나는 미국에 도착했다. 7월 16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왼쪽 뇌혈관 폐색, 뇌경색이었다. 나는 그때 혼란스러웠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이 병에는 좋은 치료법이 없고, 약물로 유지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을까? 갑자기 중국에서 맞은 백신이 생각났고, 이 병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어쩔 수 없이 7월 31일,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어 조기에 귀국했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 나는 상하이에서

격리되었다. 당시 나는 큰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고, 무력함 속에서 파룬궁을 떠올렸다. 내 이모는 원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였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치되었다. 나중에 어머니도 수련을 시작하셨고, 오랜 기간의 질환도 완치되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내과 의사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인품이 좋은 분이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사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고, 오직 파룬궁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真善忍好(쩐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라고 했다.

격리 기간 동안, 나는 대법의 9자 진언을 마음속으로 염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반성했다. 나는 겨우 40대인데 이런 병에 걸려 얼굴이 망가졌고, 다리

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다리를 끌며 걷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리저리 생각하다 갑자기 ‘진선인’ 세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 자신과 대조해 보니, 너무 형편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역으로 돌아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공법 도해를 받아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가부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손이 머리 위에서 무언가를 뽑아내는 느낌이 들었고, 즉시 머리가 가벼워졌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연공을 꾸준히 했다.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힘이 없던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법은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비범하다! 대법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백신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모가 1996년부터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20여 년의 시간을 놓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다행히 이제 대법을 얻었고, 열심히 수련하여 명실상부한 대법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번 나를 구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福

파룬궁이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을 근본 지도로 삼으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은 사람을 선(善)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에게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용하는 좋은 사람이 되며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 수준과 경지를 향상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1998년 중국 국가 체육총국이 수련자 1만 255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 완치 및 기본 회복율은 77.5%, 건강개선을 20.4%로서, 더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유효율은 97.9%에 달했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국에 전파됐고 수련자 수는 1억이 넘는다. 리홍쯔 선생이 제자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법륜(轉法輪)’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출판 발행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파룬따파 수련생이 매일 필독하는 고전이다. 福

천 길 낭떠러지에서 대법을 만나 새 생명을 얻다



[중국 투고] 10여 년 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삶은 행복했습니다. 결혼 한 이듬해 임신했는데 정말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임신 4개월 즈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현지 병원과 시립병원의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낫지 않고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내려가 결국 성(省) 소재지의 큰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날로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른을 살리겠나요, 아니면 아이를 살리겠나요?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혈소판 수치가 1unit(정상은 100~300unit)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고 오랜 교수의 경험상 산모와 태아 모두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했습니다. 저에게 위급 통지서를 주며 산모와 태아 중 누구를 살릴지 결정하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듯 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는 기회조차 없다고?’ 절망으로 마음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살아갈 희망도 없어 보였으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위급 통지서를 찢어 바닥에 던지자 병실에 있던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엉엉 울었던 겁니다.

고모할머니가 생명을 구하는 진언을 알려주다

문득 남편이 먼 성시에 있는 고모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우리는 60대의 고모할머니가 사시는 대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친절하고 건강하셨으며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찼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며 관광지로 안내하셨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시는 고모할머니는 수련으로 모든 병이 나았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삼퇴(三退,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권장하셨습니다. 떠날 때 고모할머니는 파룬따파 책과 호신부를 주시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자주 읽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대법 서적을 읽어보니 좋다는 걸 알았지만 수련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환경 탓에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이 일을 잊었습니다.

저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전화로 고모할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제가 아직 의식이 있다는 걸 아신 고모할머니는 “작년에 내가 말해준 거 아직 기억하고 있어?”라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가 떠올랐고, 그는 재빨리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이 아홉 글자를 경건히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산모와 태아가 무사해 남편과 저는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며 사부님께 우리 젊은 부부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기적으로 산모와 태아가 무사해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혈소판을 검사하러 왔을 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측정할 때마다 올라갔고 나흘째 되

는 날 정상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기를 심연에서 구해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모든 수치도 정상이어서 곧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이웃과 친지,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제때 출산할 수 있었고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올해 열 살이 됐고 그 후 낳은 둘째는 이제 네 살입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사부님에 대한 우리 가족의 감사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생명의 은인이신 사부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분신자살’ 거짓 사건에 드러난 뚜렷한 허점들

◆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나?

‘분신자살’ 점화 1분도 안 되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왔을까?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 돌발사건인데 화면은 안정적이고 또렷하다

‘분신자살’은 돌발사건인데, CCTV에서 촬영한 화면은 안정적이고 또렷하며 영상은 원경, 근경과 클로즈업까지 갖췄다. 업계 사람들은 딱 봐도 ‘포즈’를 취하는 연기임을 알 수 있다.

◆ 맞아 죽은 걸까, 화상으로 죽은 걸까?

CCTV의 느린 화면에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류춘링(刘春玲)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즉시 쓰러지는 장면이 있다. 류춘링은 맞아 죽은 걸까, 화상으로 죽은 걸까?

◆ 휘발유가 가득 찬 사이다 페트병이 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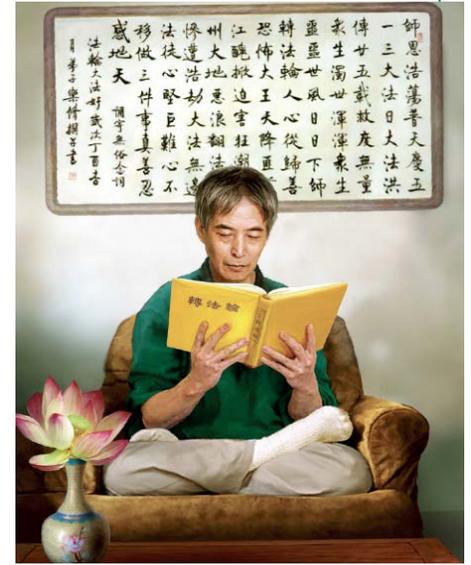
왕진동(王进东)이 입은 옷은 불에 탔는데, 그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가 가득 찬 사이다 페트병은 새것처럼 새파랗다. 

유전성 간염을 앓은 5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

나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은퇴한 교사 장귀청(张国清)이며 한때 질병으로 고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의 유전성 간염으로 다섯 형제 중 네 명이 차례로 사망했는데 세 명이 간염으로 사망했다.

1993년 초, 나도 중증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먹지도 못했으며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친척이 나에게 파룬궁을 소개해주고 파룬따파 책과 설법 녹음을 구해주었다.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했던 나는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는데, 전에는 분명히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 온 것이 헛되지 않았으며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밤낮으로 들으며 어느새 식욕을 되찾고 책을 조금 읽을 수 있었으며, 일



어나 앓을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몇 걸음 걸을 수 있었고 기운을 되찾았다. 이 과정은 한 달 정도 걸렸다. 녹음을 듣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연공장을 찾고 싶었다.

1999년 정월 초사흘날 아침, 나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연공장으로 향했다. 모피 코트와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여위고 안색이 어둡고 누렇게 변해 무서워 보였다. 나는 너무 쇠약해서 연공을 할 수 없었기에 의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녁에는 가족이 나를 부축하고 법공부 모임에 가서 ‘전법륜(转法轮)’을 읽었다. 한 사람씩 한 구절

을 읽었는데 나도 한 구절을 읽었다. 음력 정월 셋째 날부터 정식으로 대법 수련에 들어갔는데 몸은 매일 달라졌고, 열다섯째 날부터는 수련생들과 함께 대법을 홍보하러 다녔다.

파룬따파는 정말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나는 수련 후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얼굴이 장밋빛으로 변하고 식욕도 좋아졌으며 사소한 집안일도 할 수 있었다. 리 대사님은 내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다!

후기: 고통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장귀칭은 파룬궁 수련을 고수하고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다음은 장귀칭이 허베이성 바오딩 노동교양소에 부당하게 구금되었을 때 겪은 사실이다.

2003년 새해가 되자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경찰 장(張) 씨가 나를 너무 세게 밀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는 또한 대나무 판으로 내 손등을 내리쳤고, 신발 뒤꿈치로 내 발을 밟고, 담배꽂초로 코에 연기를 쏘이고, 전기봉으로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충격을 가했다. 나는 고문의 고통으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리다용(李大勇) 경찰이 대화하려고

나를 찾아오자 나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죽으면 당신이 나를 죽인 것이다, 나를 전향 시키려 하다니 어렵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한 번은 리다용이 다시 십여 명의 경찰을 데리고 나를 둘러싸고는 수련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8~9명의 경찰이 나를 둘러싸고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해 나는 땅에서 뒹굴었다. 경찰이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나에게 “그래도 연공할 거냐?”라고 물었다. 그들은 오전 내내 전기 충격을 가했고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자 그들은 멈췄다.

다음날 내가 깨어난 것을 본 경찰은 죄수들을 시켜 나를 작은 방에 데리고 가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혔다. 그들은 ‘탁, 탁’ 소리 나는 전기봉을 들고 내게 다시 수련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경찰 5~6명이 우르르 몰려와 10분 동안 전기 충격을 가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의자까지 부서졌는데 리다용은 의자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전기 충격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들은 다시 나를 창문 밖 철창에 수갑을 채워 한 달 동안 매달려 있게 했다.

장귀칭은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부님과 대법을 배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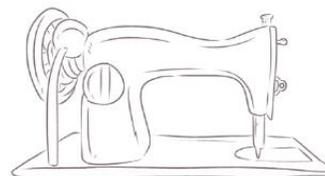
▲의상 디자이너 리메이는 한복(汉服)의 바느질 한땀 한땀에 전통문화의 사람되는 이치와 한복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성량함으로 엮은 아름다운 삶

명혜기자 심용(沈容) 취재보도

대만 화롄에서 태어난 리메이(麗美)는 어려서부터 양복 재단사에게 뛰어난 재봉술을 배웠다. 18살 때 타이베이로 온 그녀는 옷을 만드는 것을 통

해 재봉 경험과 기술을 풍부하게 쌓아왔다.



시댁의 빛을 갠느라 심신이 지치다

리메이는 21살에 결혼했고 결혼 후 행복한 삶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없었으나 결혼 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남편의 집안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대만달러 100만(약 20만 위안)이 넘는 빚이 있었다. 리메이는 조금도 주저없이 빚을 짊어지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 또한 그녀는 아이를 돌봐야 했고 때때로 간질 발작을 앓고 있는 시아주버니를 돌봐야 했으니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 겨우 시댁의 빚을 갠 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리메이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지만, 남편은 견디지 못해 자주 해변으로 달려가 멍하니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리메이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동안 시아버지를 돌봤다.

간경화로 육체적 고통을 겪다

그러나 리메이의 몸도 장기간 견딜 수 없는 부하로 인해 무너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복통, 두통, 몸살

로 견딜 수 없을 때 혼자 병원으로 달려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사를 맞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에 제 몸을 돌볼 시간이 없어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리메이는 의사로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간경화로 인해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나 온몸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습니다. 손끝이 너무 아파서 구부릴 수도 없고,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매 순간 통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먹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라고 했다.

‘전법륜(转法轮)’을 읽고 구원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듯이 리메이가 41세가 되는 해 어느 날, 우편함에서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 9일 학습반, 무료로 공법을 가르치고 예물도 돈도 받지 않는다.”라는 전단지 봤다. 리메이는 무료이므로 한번 배워봐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반에 참가한 날 밤, 가족이 잠든 후 리메이는 의자에 앉아 ‘전법륜’

을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읽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녀는 온몸과 머리, 목,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무언가가 회전하는 것을 느꼈다. “책을 계속 읽다가 그것은 파룬(法轮)이 도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리메이는 밤새 ‘전법륜’을 다 읽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참 편했어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후 거의 한 달간 하루에도 몇 번씩 매우 끈적거리는 가래를 뱉어냈어요. 사부님께서 몸을 정화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리메이는 과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몸이 매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매우 컸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사부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큰 행운입니다.”라며 목메어 울었다.

리메이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었지만 파룬궁을 배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연공하면서 몸이 하루하루 달라지며 활력을 되찾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경제적 여유도 생겼다.

원망을 버리니 남편이 달라져

수년 동안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과 마주했던 리메이는 수련 후 마음속의 원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저는 수련이 잘되지 않아 진정한 선(善)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겉으로는 좋은 태도를 보여도 남편을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메이의 마음이 바뀌자 남편의 태도도 바뀌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는데 설거지도 했어요. 퇴근한 후 보니 남편이 빨래도 하고 말린 옷을 정리해 놓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가족 친지들과도 잘 어울렸으므로 이제 가정 내 갈등이 없어진 셈이에요.”

여직원에서 수상 디자이너로

몇 년 동안 공장에서 재단사 및 패턴 제작자로 일하면서 실에서 방직, 패턴에서 바느질, 그리고 실제로 모든 종류의 방직물 의류를 생산하기까지 리메이는 의류를 만드는 기술과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수련에 들어선 그녀는 한복을 만드는 바느질 하나하나에 전통문화의 사람되는 이치와 한복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리메이와 그녀가 디자인한 명나라 황후의 상 ‘건곤(乾坤)’. 이 작품은 제4차 ‘전 세계 한복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리메이는 2010년과 2013년 미국 NTDTV가 주최한 ‘전 세계 한복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 처음으로 ‘특별 공예상’을, 두 번째로 ‘동상’을 수상했다.

리메이는 “저는 원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수련을 시작하면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법이 저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는 리메이에게 건강한 몸과 사심 없는 마음을 주어 그녀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으며, 리메이는 자신의 삶에서 그 이상의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생체 장기적출 생존자 경험담

명혜기자 왕영(王英) 편역 보도



▲ 헤이룽장성 출신인 청페이밍(程佩明)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공에 의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 청페이밍(程佩明)이 중공에 의해 강제로 생체 장기적출당한 비참한 사건이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은 청페이밍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다른 많은 수련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제 사회는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8월 9일 청페이밍(程佩明)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공에 의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한 경험을 증언했다. 일주일 만에 100년 전통의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영국에서 가장 널리 구독되는 신문인 ‘더 선’, 영국 최대 발행부수의 ‘메트로’, 영

국의학저널(BJM.com), 미국 외교전문지, 미국 ‘스펙테이터’, 미국의 소리, 호주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 ‘쿠리어 메일 신문’, 아일랜드 ‘더 션’, 아시아 가톨릭 연합뉴스, 네팔 언론, 아프리카 케냐 포스트, 나이지리아 미디어 등이 이 이야기를 후속 보도했다.

호주 뉴스닷컴은 중공 정부의 강제 장기적출 소문이 수년간 떠돌았으며, 전문가들은 이제 청페이밍의 증언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2024년 6월, 미국 하원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범죄 행위와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막기 위한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파룬궁 보호법’은 현재 미국 의회 상원에 제출되었다.

영국 메트로 “그는 살아남아”

영국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메트로’ 신문은 8월 9일, 청페이밍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달리 살아남아 중공의 학대 경험을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사형수의 장기적출이 합법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중공 정권이 돈을 지불한 환자들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양심수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중국 장기 거래의 시장 가치는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이 시작되면서 장기이식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주요 장기를 며칠 만에 쉽게 구할 수 있었고, 4시간 이내에 ‘응급’으로 간을 구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국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는 파룬궁 수련자 청페이밍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의 “전형적인 피해자”라며 그가 특별한 이유는 장기적출에서 살아남았고, 중공 당국의 추적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스펙테이터 “중공 대량학살의 증인 등장”

미국 스펙테이터(The American Spectator)는 8월 11일, ‘또 다른 공산주의 수용소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대량학살을 목격한 증인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사는 청페이밍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첫 생존자”라며, 그의 최근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한 증언은 “중국 양심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공포의 실상을 드물게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중공 강제 장기적출 첫 생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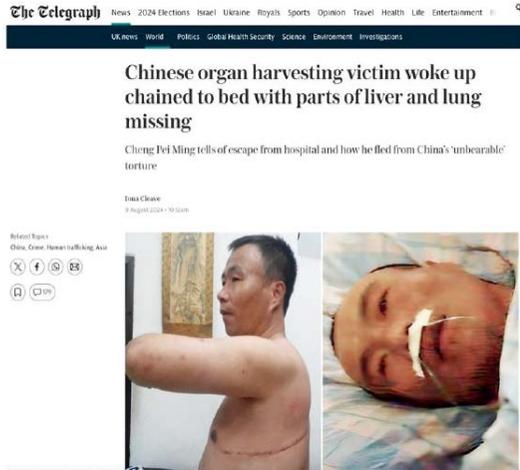
“그들이 저를 죽일 줄 알았어요.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청 씨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셔츠를 벗어 가슴에서 등까지 이어진 흉터를 보여줬다.

청 씨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다섯 차례 중공에 납치됐고, 매번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2002년 그는 8년 형을 선고받고 감금됐다.

2004년 7월, 청페이밍은 교도관에 의해 병원으로 끌려가 강제 수술을 받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 침대에 수갑이 채워진 채 가슴에 35cm 길이의 절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2년 후 교도관들이 다시 한번 청페이밍을 강제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보냈다. 청 씨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 탈출 기회가 찾아왔다. 청 씨를 감시하던 경비가 잠들자 그는 도망쳤다.

이후에 그는 태국으로 탈출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파룬궁 수련생 청페이밍이 중공에 의해 생체 장기적출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언제든 살해당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 씨는 2020년 미국에도 착한 후에야 안전함을 느꼈다고 했다.

국제 이식 전문가들은 스캔 결과 청페이밍의 간과 폐 일부가 수술로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이리쉬 선 “완전한 악”

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아이리쉬 선은 8월 9일, “완전한 악: 중국 ‘계슈타프’가 내 장기를 적출했다. 폐와 간을 도려냈다”며 생체 장기적출 고문의 최초 생존자로 알려진 청페이밍의 증언을 보도했다.

2002년 청페이밍은 정부에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해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어느 날 강제로 병원에 끌려가 수술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았다. 내가 거부하자 6명의 교도관이 날 제압해 약물을 주사했다”고 증언했다.

“다음 기억은 코에 관을 꽂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옆구리 붕대 아래로 피 섞인 물이 든 관이 보였다.”

미국 외교 전문지 “파룬궁 수련자들이 직면한 공포”

워싱턴에 본사를 둔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8월 10일, “중공 강제 장기적출의 첫 생존자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청페이밍의 증언이 중국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직면한 공포를 드물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청페이밍은 말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억압됐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세상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행이 계속돼선

안 됩니다.”

아시아 가톨릭 연합뉴스 “각국 정부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시아 가톨릭 연합뉴스(Union of Catholic Asian News)는 8월 12일 청페이밍의 증언을 통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각국 정부는 청페이밍의 경험을 경청하고 독립 재판소의 판결을 재검토하며 이 끔찍한 사건에 심각하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장기이식 관광을 중단하고 장기이식을 위한 중국 여행을 금지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중공 정권에 책임을 묻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페이밍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우리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중공의 학살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실종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 자녀를 잘 지켜야 해

글/ 문선(聞善)

최근 중국에서 실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장시성 중학생 후신위(胡鑫宇)의 실종 사망 사건이다. 많은 부모가 중국의 장기이식과 생체 장기적출의 어두운 내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후신위의 의문스러운 실종 사망 사

2022년 10월 14일, 장시성 지위안 중학교(전면 폐쇄식 기숙 학교) 고등학생 후신위가 교내에서 갑자기 실종되었다. 학교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후신위가 실종된 순간의 기록은 없었다. 이 15세 소년이 실종된 지 106일 후, 경찰은 학교 근처의 곡물 창고에서 그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결론은 후신위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신발 끈으로 목을 매 자살”



▲후신위의 의문스러운 실종과 죽음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이 생체 장기적출의 어두운 내막에 주목하게 되었다.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들끓었고, 대중은 대체로 이를 믿지 않았다.

후신위 사건에 대해 당시 한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의 혈액형과 조직 정보가 어떤 중공 고위 관리와 일치해 장기 공여자가 되어 생체 장기적출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일반 국민은 확인할 수 없지만, 중공 문화부 부부장 가오잔샹(高占祥)이 자신의 장기이식 사실을 밝힌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추모문에서 드러난 고위 관리의 장기이식을 통한 수명 연장

가오잔샹이 2022년 12월 9일 사망한 후, 중 전국 정협 상무위원 주용신

(朱永新)은 추모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가오잔샹은 계속해서 병마와 싸워왔으며, 그의 장기 대부분을 교체했다. 그는 농담 삼아 많은 부품이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용신은 무의식중에 중공 권력층이 장기이식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비밀을 누설했다. 주용신의 이 글은 중공에 의해 전면 삭제되었지만, 네티즌들이 스크린샷을 보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도자들에게 장기이식을 해준다는 소문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두 90대까지 살 수 있는 거군요.” “가오잔샹이 사망했는데, 그의 장기를 여러 번 교체했다니, 얼마나 많은 후신위가 그로 인해 실종되었을까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부장’도 장기이식을 장난처럼 하는데, 더 높은 지위의 관리들은 어떨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2019년 9월 15일, 중국 위챗에서 베이징 301 병원의 광고가 퍼졌는데, 이는 중공 지도자들의 “건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는 “981 수장 건강 프로젝트”가 150세 수명 연장을 목표로 2005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혔

다. 이 광고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다음 날 당국에 의해 차단되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식된 장기에도 수명 한계가 있어 최대 10년, 어떤 장기는 2~3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이식을 받은 중공 관리들이 수명을 연장하려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장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 내부 사정을 밝힌 중국 부호는 장쩌민의 장남 장면형(江綿恒)이 암에 걸려 이미 세 번이나 신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현재 중국에서 청소년 실종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심지어 시신을 찾아도 가족들이 볼 수 없게 하고 강제로 화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익숙한 과정을 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 장기적출 상황과 똑같다. 왜 시신을 보지 못하게 할까? 장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때려죽여도 그만이고 때려 죽였으면 자살로 처리하며, 신원 확인 없이 바로 화장하라.”고 명령했다. 후에는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얻고 나쁜 습관이 없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우수한 장기 공여자로 삼아 중국에 거대한 생체 장기적출 산업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중공 체제 내에서 이 악랄한 산업 체인과 관련된 공안, 검찰, 법원, 군대, 병원 모두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

물론, 이 극악무도한 생체 장기적출 산업의 '서비스' 대상은 중공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의 부유층들도 앞다투어 중국에 와서 장기이식을 받았다.

2006년, 중공의 대규모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만행이 국제적으로 폭로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거나 감히 믿을 수 없었지만, 오늘날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의 마수는 이미 파룬궁 수련자에서 일반 중국인에까지 뻗치고 있다.

장기이식 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합한' 장기를 찾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적합한 장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의 많은 병원은 2주, 심지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많은 공여자는 어디서 오는 걸까? 거대한 생체 공급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혈액 샘플을 채취당한 중국인들은 모두 예비 공여자가 되었을 수 있다.



▲ 많은 청소년 실종으로 인해 중국의 많은 부모는 자녀가 방과 후 혼자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장기이식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유아 장기이식 기술까지 따라잡고 있다.

현재 중국의 많은 부모는 자녀가 방과 후 혼자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직접 데리러 간다. 하지만 사실 방어하기란 쉽지 않다. 중공은 전체 중국인을 감시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혈액 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정보는 이미 빅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장기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살펴야 하며, 아이들이 속아서 '공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염병에서 불운을 피하는 방법

글/ 자군(紫君)

여러 증거에 따르면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당국만이 추가 핵산 검사를 금지하고 이를 전염병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옛사람들은 역병에 눈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은 무엇을 겨냥해 온 것일까?

파룬따파 창시자인 리홍쯔(李洪志) 대사는 2020년 3월과 202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주로 중국공산당과 공산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며 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공식 부고 기사를 보면 중공 당원과 고위 관료, 공산당을 옹호하는 전문가, 교수, 유명 인사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전염병은 나이와 관계없이 중공 당원과 친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있다. 중공의 공산당원, 공청단원 소선대의 일원이거나 공산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공산당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리홍쯔 대사는 이미 글 '이성

(理性)'에서 개시하셨다. "사람들은 마땅히 신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는바, 자신의 어디가 나쁜지,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기를 희망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영단묘약(靈丹妙藥)이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三退)하고 진심으로 진언(真言)을 염(念)하는 것이 모두 가장 좋은 영단묘약이자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이 개선되면 곧 일이 바른 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글 '이성'에서 리 대사는 세인들에게 명확히 경고하셨다. "중공사당(中共邪黨)을 멀리하고, 사당(邪黨)을 위해 줄을 서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붉은 마귀가 있기 때문으로, 표면적인 행위가 깡패일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것을 다 한다. 신은 그것의 제거를 시작하려 하는바, 그것을 위해 줄을 서는 자는 모두 도태될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켜보도록 하라."

중공은 지난 여러 차례 정치 운동에서 8천만 중국인을 박해해 죽였고 파룬궁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고,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희생양이 되지 않고, 전염병에서 무사히 살아남기를 바란다.

80세에 직장암 90세에 나는 듯이 걷다

글/ 옥진(玉珍, 헤이룽장)



몇 년 전,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느라 일을 할 수 없어 가족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다. 한 지인이 80대 노인 두 분을 돌보는 일 자리를 소개해주었다. 할아버지는 81살이었고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할머니는 82살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 딸이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두 끼 밥을 해드리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해줄 보모가 필요했다. 조건을 듣고 괜찮을 것 같아서 지원하러 갔다.

보모가 되어 착한 인연을 맺다

두 노인 모두 식량 부문에서 일했고 지도자였던 할아버지는 정의감도 있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지만, 가족에게는 가부장주의적이었다. 할머니는 난청으로 말이 많지 않으며 참고 양보하는 편이었다.

면접 첫날 두 노인에게 내가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말한 다음 진상을 알렸고 할아버지는 삼퇴(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하셨다. 할머니는 힘들게 가입한 것이니 탈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한 달에 1500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매달 4일의 임금을 공제했기 때문에 한 달에 22일을 일하고 1300위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나중에 일당으로 계산하여 안 나가면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집에서 일할 당시 나는 겨우 30대였고 한 끼에 밥을 두 그릇이나 먹을 수 있었다. 한번은 할아버지의 외손녀가 왔을 때 “우리 가족 중에 밥 먹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 알고 있니?”라고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알고 있다고 대답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나는 파룬따파 수련자로서 사부님께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기에 할아버지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없었다. 나는 노인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 찐빵과 채소를 가지고 다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감동했고, 요리할 때면 나에게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그들은 살던 58평짜리 집을 팔고 큰딸의 90평짜리 집에서 살게 되면서 이전보다 청소할 일이 더 많아졌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임금을 조금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할아버지는 하루에 10위안씩 올려주었다.

설 연휴에 딸이 집에 오면 할아버지는 나를 오지 말라고 해서 한 달에 500~800위안밖에 받지 못했다. 월급은 턱없이 적었지만 두 노인과 좋은 인연을 맺은 거로 생각하며 그 집에서 보모로 계속 일하며 그들을 돌봤다.

5~6년 동안 일한 후 할아버지는 내 월급이 너무 적다고 느꼈는지 중추절에 200위안, 설날에 제 아이에게 세뱃돈 500위안을 주셨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자 그는 좋아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내가 일하러 갔을 때 그는 그 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물건으로 바꾸어 주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스피커

그의 집에서 나는 앞쪽에 큰 주머니가 달린 앞치마를 입고 그 안에 플레이어를 넣고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들으며 일했다. 할아버지는 들을 수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할머니는 들을 수 없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이 아주 좋아요. 나도 하나 사서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하나 사서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넣어 할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방송을 들었다.

어느 해, 내가 설 휴가 중일 때 할아버지가 맹장염에 걸렸고 아이들은 수술을 위해 그를 병원에 보냈다. 그러나 배를 절개하여 보니 할아버지의 맹장은 이미 잘려있었고 의사는 내장을 씻어서 다시 봉합했다.

할아버지는 입원했을 때 플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잠만 나면 소리를 크게 하여 들었으며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손녀, 손녀사위가 듣고 할아버지에게 “뭘 듣고 있나요?”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리홍쯔 선생이 설법하시는 거야.”라고 대답했다. 외손녀 사위는 “좋은 연설입니다.”라고 말했다. 의사가 회진하러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갔는

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회진하러 오자 나는 플레이어를 꺼버렸다. 할아버지는 “왜 스피커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라고 물으셨다. 나는 “사람이 많아 너무 시끄러워요”라고 대답했다. 사실 내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겁먹지 않고 “어서 들어줘!”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법을 듣고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다. 그는 오진으로 인한 불편을 의사에게 털어놓지 않았고 7일 만에 퇴원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약을 사러 약국에 갔을 때 판매원이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흔이 넘으셨죠.” 할아버지는 거의 아흔이라고 대답했다. 판매원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리홍쯔 선생님의 설법을 매일 듣습니다.”라고 말했다. 약을 파는 판매원은 “듣지 마세요, 공산당도 허용하지 않고 X교이기에 중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집 보모는 파룬궁 수련생인데 너무 착해요. 20년 동안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판매원은 “그녀가 집에서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파룬궁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매일 법을

듣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약을 먹고 싶으면 먹어요. 매일 듣는데 날파람을 일으키며 걷고 있고, 계단 네 층을 올라갈 때도 숨을 헐떡이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대법을 실증했다.

할머니와 큰 사위가 삼퇴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진상을 분명히 알고 삼퇴를 했다. 할머니는 3년 전 92세의 나이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큰 사위는 교육국 인사 부서의 책임자였다. 그에게 진상을 알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58세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나는 5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 일을 그만뒀다. 지금은 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서 할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그때마다 ‘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眞善忍好(쩐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염하고 꾸준히 법을 들으시라고 당부한다. 그는 매일 염하고 있으며 게다가 “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덧붙여 “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라고 염한다고 말했다.

94살의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며 나는 듯이 걷는다. 



교통사고 재난에서 무사한 비결

[중국 투고] 2024년 초여름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외지로 출장을 갔다. 우리는 두 대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나는 작은 차를 운전하고 뒤에서 따랐다.

대형 화물차에 치어 소형차 변형돼

떠나기 전에 내가 아는 파룬궁 수련생이 “위험할 때 ‘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眞善忍好(쩐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외우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차에 대법 호신부(護身符)를 걸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웠다.

우리는 순조롭게 앞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요금소까지 왔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앞차가 우회전 신호를 켜고 출구를 향해 운전했다. 이때 안쪽 차선에 있던 나도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 속도를 줄였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바깥쪽 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 안전거리에 있는 대형 트럭이 보였고, 나는 이미 중앙 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선을 바꿀 수 있었다.

바깥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형 트럭이 오른쪽 뒤쪽에서 내 차

를 들이받았다. 나는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흔들리더니 차가 멈추면서 바깥 차선에서 안쪽 차선으로 밀려났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사고가 났음을 알았다! 차 앞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깨진 유리 조각이 내 머리 위부터 아래까지 온몸에 떨어져 있었다. 운전석은 휘어져 있었고 휴대 폰도 고장 났다.

유리 파편으로 덮여 있지만 안전해

나는 두렵지 않았고 차 안에서 2~3분간 침묵한 후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라는 9자 진언을 계속 외웠다. 교통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 주려고 차를 두드리고 큰 소리로 나를 불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대법 진언을 외우면서 발로 문을 찾더니 문이 열렸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나는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내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췄고 연쇄 추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 있던 운전자가 흥분해서 외쳤다. “차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 사람은 황금빛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요. 너무 신기해

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몸과 머리카락, 얼굴에 유리 파편이 가득했고 본능적으로 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몸에 유리 파편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모두 떨어졌다. 특히 머리카락에는 유리 파편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는 전혀 다친 곳이 없었는데 정말 놀라웠다! 나를 지켜 주신 분이 대법 사부님이 인 것을 단번에 알았다. 눈물이 계속 흘러 내리며 생명을 구해준 대법 사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큰 재난에서 살아남은 후 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기 돈으로 직접 진상 자료를 인쇄하고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진상과 구원의 비밀을 전했는지 단번에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면 위험에 처했을 때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아 안전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나는 더는 방황하지 않고 더는 관망하지 않고 파룬따파를 수련할 것이다!



백 세 노인의 탈당기

글/ 맥부(麦赭)



중 씨 서기는 ‘킵’ 웃었다. “사람은 신이 만든 것이고, 탈당을 하는 것은 조상을 인정하고 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아름다운 자녀이며, 당신도 매우 아름답고, 매우

길을 걷다가 백 세에 가까운 중(钟, 가명) 씨 서기를 만나서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한탄하며 3년 봉쇄 후, 주변의 옛 부하들과 오랜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전염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모두 오래된 당원이라고 했다.

나는 “당원은 조상을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자손들입니다. ‘공산당 선언’의 서두에서 자신을 ‘유령’이라고 불렀고 공산당은 또 무신론이며, 자신을 원숭이에서 변해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거의 백 살이 되었고 보고 들은 것이 많고 식견이 넓으니 다음 인간으로 변할 배아 원숭이는 모두 준비되었나요?”라고 말했다.

고생하면서 거의 백 년 가까이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라고 나는 계속 말했다. 중 씨 서기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나는 또한 노인에게 파룬따파의 진상, 진선인은 우주의 특성이자 불법(佛法)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문화대혁명 기간 누구를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았기에 장수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법을 들을 기회와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느님이 당신에게 하사하신 축복입니다.”

중 씨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말했다. “리 사부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중 씨 서기는 당에서 탈퇴했다!



삼퇴 정보

2024년 8월 말 현재, 해외 탈당 웹 사이트에서 4억 35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인터넷 봉쇄 돌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삼퇴’ 웹 주소 <https://tuidang.org>에 접속한 후 실명, 가명 또는 소명을 사용하여 진심으로 탈퇴하십시오.



▲ 2024년 7월 20일, 영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런던 중심부에서 중공의 25년간 지속된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는 성대한 퍼레이드와 집회를 열어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 파룬궁수련자 덩러빈(丁乐斌)은 집회에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산둥성 리자오에서 당국에 부당하게 체포된 부모님의 안전에 관한 유럽 의회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그의 어머니 마루이메이(马瑞梅)는 현재 석방되었지만, 아버지 덩위안더(丁元德)는 여전히 불법적인 구금 상태이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vg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